

음악교육 국제학술지를 중심으로 살펴본 발달연구 동향

Research Trends of Developmental Research in International Music Education Journals

박 은 실*

Eunsil Park

초록 본 연구는 2011~2020년 동안 음악교육 관련 국제 학술지에 실린 발달 연구 논문을 분석한 것이다. 학술지는 JRME, CRME, IJME, POM을 그 대상으로 하였고, 분석 범주는 학술지별 논문 수,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주제로 정하였다. 연구 결과, 학술지별 발달 논문의 비율은 JRME가 가장 높았다. 초등학생과 대학전공자,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많았고, 유아부터 중고등학생까지와 대학생부터 성인까지의 비중이 비슷하여 골고루 발달연구의 대상이 됨을 알 수 있었다. 연구방법으로는 실험연구, 조사연구가 가장 많았고, 질적연구와 사례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연구주제별로는 문화적, 환경적 영향에 대한 연구, 연주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국제 학술지, 발달연구, 연구 동향, 연구 대상, 연구 방법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developmental research papers published in international music education journals from 2011 to 2020. The journal were JRME, CRME, IJME, and POM, and the analysis categories were the number of papers by journal, research participants, research method, and research theme.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JRME had the highest ratio of developmental papers by journal. There were many papers targeti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college music major students, and infants. Experimental studies and survey studies were the most common research methods, and qualitative studies and case studies were also many conducted. In the research theme, it was found that research about cultural, environmental effects and performance skill were actively conducted.

Key words: international journal, developmental research, research trend, research participant, research method

* Corresponding author, E-mail: pehgrace25@hanmail.net

Teacher, Heungdo Elementary School, 20, Wonsinheungnam-ro, Yuseong-gu, Daejeon, Korea

I. 서론

음악 수업 시간에 교사는 순간순간 학습자의 활동을 해석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판단하며 적절한 도움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Custodero(2010)는 음악교사에게 이중적인 시각(Dual perspectives)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즉 학습자의 현재의 상태와 앞으로 가능한 상태 모두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은 학생에 대한 발달 경향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된다. 발달에 대한 이해는 교육의 대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적절한 교수 전략과 체계적인 내용을 결정하도록 해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발달에 대한 연구는 발달심리학적 연구를 의미한다. 임신부터 전생애까지의 신체적 심리적 기능의 변화과정을 그 대상으로 하며, 정신기능, 사회적 관계, 그리고 그 이외의 인간 본성의 중요한 측면이 전생애 주기를 통해 어떻게 발달해 가고 변화해 가는가를 기술하고 설명하는 것이다(Gerrig, 2016). 따라서 발달연구는 여러 가지 학문적 영역이 겹쳐져 있는 간학문적 연구일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하여 과거 발달에 대한 이론적 배경은 크게 인지주의와 행동주의로 대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Hargreaves(1986)는 음악 발달 심리학에서 세 가지 주요 이론적 관점을 인지심리학, 인지발달 심리학, 그리고 행동주의 심리학으로 보고 각 심리학적 연구들의 주요 영역을 살펴보았다(Hargreaves, 1986).

먼저 인지심리학은 지각, 학습, 기억, 언어, 개념형성, 문제해결, 사고 등에 관한 모든 것들이 포함되며, Chang & Trehub(1977)의 선율 지각 발달연구, Dowling과 동료들의 조성감 획득 과정에 대한 연구(Dowling, 1982), Moog(1976)와 Moorhead & Pond(1978)의 노래 발달에 대한 연구, 그리고 음악적 패턴에 대한 기호 표현 발달에 대한 Bamberger(1982)의 연구 등이 대표적인 연구라 할 수 있다.

인지발달 심리학은 인지심리학의 한 분야로도 볼 수 있는데, 음악교육에서 가장 용이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피아제의 이론이 주도적이다. 여기에는 음악적 소리에 대한 인지적 발달을 연구한 Serafine의 연구와 Zimmerman의 연구, Gardner를 비롯한 Project Zero 팀의 예술 상징을 중심으로 한 예술발달연구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행동주의 심리학은 인간 발달을 조작 법칙과 조건화로 설명하려는 초기 이론들부터 관찰과 모방을 강조하는 사회학습이론까지가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행동주의 심리학은 초보적인 악기 기술을 가르치는데 효과적일 수 있으나, 보다 높은 단계의 기술을 다루기에는 인지적인 측면이 포함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최근의 발달 이론 안에는 이 외에도 사회문화적, 생태학적 이론들이 반영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례로 Custodero(2010)에서는 발달 이론 안에 심리분석적 이론, 인지적 단계이론, 사회문화적 이론, 생태학적 이론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그는 인간 발달에 대한 이런 이론들은 변화에 대한 태도, 그리고 무엇이 변화를 이끌어내는 지에 대한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심리분석적 이론은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한 개인의 내적 외적 갈등에, 인지적 단계이론은 환경에 대한 개인의 인지구조 및 방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또한 사회문화적 이론은 타인과의 상호작용, 생태학적 이론은 인간을 둘러싼 다차원적 맥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사회문화적, 생태학적 강조는 발달에 대한 환경적 중요성과 전생애적 발달에 대한 인지로 이어진다. 적절한 음악적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특히 어린 시기 아동은 자신이 속한 문화에서의 음악을 익힐 수 있고, 이를 통해 획득된 능력들은 일생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Welch, 2007).

이와 같은 음악 발달에 대한 여러 이론들, 그리고 이런 이론들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는 여러 연구들은 음악교육에서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발달적 측면의 제안을 해 줄 수 있다. 특히 이런 문제들 안에는 일반적인 발달 특징과 음악적 성장과의 관계, 노래, 악기 연주, 듣기 능력, 창작, 기보 등과 같은 음악적 능력이나 기술의 발달, 음악 발달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 개인차의 문제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위에서 언급된 많은 이론들 이외에도 창작을 중심으로 한 Swanwick & Tillman (1994)의 연구, Gordon(2003)의 음악 학습 연구 등도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발달에 대한 여러 연구들을 살펴보고 음악교육에 그 연구들이 주는 다양한 시사점을 알아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발달연구의 동향을 분석해 보는 과정을 통해 발달연구의 흐름과 중심이 되는 이슈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은 다시 앞으로 음악교육에서 발달적 연구를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발달에 대한 연구의 흐름을 분석하고 있는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음악교육에서 발달과 관련된 연구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살펴본다면, 현재 우리의 연구 현황과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음악교육 전문 국제 학술지에 실린 발달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현재 우리 음악교육에 필요한 발달연구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 1) 학술지별 발달 관련 논문의 비중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 2) 음악교육에서 발달연구의 연구대상은 어떠한가?
- 3) 음악교육에서 발달연구는 어떤 방법들을 사용하는가?
- 4) 음악교육에서 발달연구의 연구주제는 어떤 특징을 보이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국제 전문 학술지를 조사 대상으로 하였는데, 음악교육과 관련된 발달연구 동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미국 음악교육 전문 학술지인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이하 JRME), *Bulletin of Council for Research in Music Education*(이하 CRME), *International Journal of Music Education*(이하 IJME), 그리고 영국의 음악심리학, 음악교육 전문 학술지인 *Psychology of Music*(이하 POM)을 선정하였다. 연구의 주제는 인간의 음악적 현상에 대한 발달연구들, 음악교육 프로그램과 교수방법의 적용을 통한 발달적 연구들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특히 인간의 음악적 현상에 대한 발달 연구들에는 음악과 관련된 신체적 발달부터 음악 지각, 인지 능력의 발달, 듣기, 연주하기 등과 같은 여러 음악 능력의 발달 등이 포함되었다. 프로그램과 교수 방법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프로그램의 적용 등을 통해 나타나는 발달적 특징, 음악교육의 효과 등이 포함되었다.

<Table 1> Journals used in this study

Journal name	Nation	Publisher	Year	Frequency	Other
JRME	USA	National Association for Music Education (NAfME)	1953	quarterly	A&HCI
CRME	USA	School of Music, University of Illinois	1963	quarterly	A&HCI
POM	UK	Society for Research in Psychology of Music and Music Education	1973	uncertain	
IJME	UK	International Society for Music Education (ISME)	1967	quarterly	

학술지의 선정은 음악교육 국제학술지들 중 전문적인 리더십과 리뷰를 하고 있으며, 영향력이 있고, 온라인 접근이 용이한지, 심리학적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는지 등의 기준에 의해 정하였다. 특히 POM의 경우 학회의 이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 음악심리학과 음악교육학 분야를 다루고 있으며, 따라서 발달과 관련된 많은 연구가 다루어지기 때문에 본 연구에 포함시켰다. 학술지에 실린 논문들 중 리뷰나 에디터 노트는 제외하였으며 연구논문만을 포함시켰다.

2. 연구 절차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음악교육과 관련된 발달연구를 JRME, CRME, POM, IJME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JRME와 POM, IJME는 <https://journals.sagepub.com/home/jrm>에서, CRME는 <https://www.jstor.org/journal/bulcouresmusedu>에서 주로 검색하였다. 우선적으로 development, developmental research, longitudinal, change 등의 검색어를 사용하여 논문을 탐색하였고, 추가로 각 학술지 검색 사이트에서 연도별로 논문명을 살펴보면 발달과 관련된 논문들을 확인하였다.

선정된 논문들은 엑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항목별 정리를 하였다. 이 때 정리 항목은 저널명, 연도, 저자, 논문명, 연구대상, 연구방법, 주제어, 연구 도구(매체), 연구 목적과 결과 등이었다. 정리된 논문들을 분석하기 위해 분석 범주를 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 범주는 학술지명, 연구대상, 연구방법 및 자료 수집 방법, 연구 목적과 결과이다. 다음은 분류를 하며 정리된 각각의 범주에 속하는 내용들이다.

<Table 2> Analysis categories

Categories	Contents by categories
Journal name	CRME, IJME, JRME, POM
Year	2011 ~ 2020
Research Participant	infants, elementary students, secondary students(general), secondary students(special), college students(special), specialists, public
Research Method	case study, ethnography, phenomenology, qualitative research, survey, experimental research, mixed method, program development longitudinal, cross-sectional, sequential study
Data Collecting	interview, observation, questionnaire, inspection tool, literature analysis
Research Theme	developmental trend: singing development, rhythm & melody cognition, listening capacity, cultural, environmental effects effects of music and music education: performance skill, music and language, social, emotional cognition, school music education

위 범주들 중 특히 연구방법은 연구동향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연구자마다 그 방법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Table 3> Categorization of research method from prior research related to research trends

	Choi, J. H.(2011)	Viig(2015)	Choi, E. S. & Shin, H. K.(2017)	Shin, H. K.(2020)
Qualitative method	documentary research teaching&learning model case study philosophical historical	qualitative action	case study phenomenology ethnography documentary research	qualitative research(case study, action research, ground theory, phenomenology, ethnography documentary research)
Quantitative method	empirical survey correlation	survey	empirical descriptive	quantitative research(survey)
Mixed method			mixed method	mixed method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연구방법 범주 구분과 발달연구에 사용된 방법들을 고려하여,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로 분류하였다. 질적 연구 안에는 사례연구, 문화기술지, 현상학적 연구, 그리고 일반적인 질적 연구 방법을 포함시켰고, 양적 연구 안에는 조사연구, 실험연구 등을 포함시켰다. 두 연구방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을 경우 혼합연구로 분류하였다. 프로그램 개발 또는 자료 개발 연구의 경우 검증이 이루어졌으면, 질적 혹은 양적, 혼합 연구 안에 포함시켰고, 프로그램이나 자료 개발만 하고 검증 절차가 따로 없을 경우 ‘프로그램 개발 연구’ 범주 안에 넣었다. 이에 더하여 인간 발달 연구에 대한 접근법에 대한 연구 동향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종단연구, 횡단연구의 범주를 추가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학술지별 연구 빈도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이루어진 각 학술지별 전체 논문 수와 이 중 발달 관련 논문의 수는 다음과 같다.

<Table 4> Developmental researches in music education by journal

JRME		CRME		IJME		POM	
<i>Develop</i>	<i>Total</i>	<i>Develop</i>	<i>Total</i>	<i>Develop</i>	<i>Total</i>	<i>Develop</i>	<i>Total</i>
23/251	9.16	8/173	4.62	16/341	4.69	30/533	5.63

전체 논문에 대한 발달연구 논문의 비율은 JRME가 9.16%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POM이 5.63%, IJME가 4.69%, 그리고 CRME가 4.62% 순이었다. 이를 연도순으로 알아 보아도 전체적으로 발달 관련 논문의 수는 특별한 증가나 감소 등의 경향을 보이지는 않았다.

2. 발달연구에서의 연구대상

연구대상별 음악교육 발달연구의 비율은 영유아,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일반인 등의 범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중고등학생은 일반계 학생과 전공학생을 구분 지었고, 연구에서 여러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였을 경우 모두 체크하였다.

연구대상별 발달 논문의 비율은 먼저 전체적으로 초등학생이 21.95%, 다음으로 대학 전공생이 17.07%, 영유아가 15.85% 순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다시 영유아부터 중등학생까지, 대학생부터 성인까지로 나누어 보면 중등학생까지가 전체의 59.76%, 대학생부터 성인이 40.24%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의 비중을 알아보면 중등, 대학, 성인 모두 합하여 전체의 40.24%를 보이고 있었다.

<Table 5> Music education development research by participant

	JRME		CRME		IJME		POM		Total	
	<i>N</i>	%	<i>N</i>	%	<i>N</i>	%	<i>N</i>	%	<i>N</i>	%
infants	6	26.09	1	12.5	2	12.5	4	11.43	13	15.85
elementary students	4	17.39	1	12.5	4	25.0	9	25.71	18	21.95
secondary students (general)	1	4.35	0	0	1	6.25	5	14.29	7	8.55
secondary students (special)	6	26.09	1	12.5	4	25.0	0	0	11	13.41
college students(special)	4	17.39	3	37.5	4	25.0	3	8.57	14	17.07
specialists	2	8.69	2	25.0	0	0	4	11.43	8	9.76
public	0	0	0	0	1	6.25	10	28.57	11	13.41
Total	23	100	8	100	16	100	35	100	82	100

학술지별로 살펴보면, JRME는 영유아와 중등(전공자)이 각각 26.0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초등학생과 대학생(전공자)이 각각 17.39%의 비율을 보여주었다. CRME는 대학생(전공자)이 37.5%, 다음으로 성인 전공자가 25.0%의 순이었다. IJME는 초등학생, 중등 전공학생, 대학 전공학생이 모두 25.0%로 동일하게 높은 분포를 보였다. POM은 일반 성인이 28.57%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다음으로 초등학생이 25.71%, 중등(일반)이 14.29%를 나타냈다.

3. 발달연구에 사용된 연구 방법

발달연구에 사용되는 연구 방법은 앞의 II. 연구방법에 제시한 바와 같이 크게 질적 연구 방법과 양적 연구 방법, 그리고 혼합연구방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전체적으로 실험연구가 29.8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조사연구 22.08%, 질적연구 18.18%, 사례연구 9.09%임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학술지별로 나누어 다시 살펴보면, JRME는 조사연구와 실험연구가 각각 26.09%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질적 연구가 21.74%로 그 다음이었다. CRME는 사례연구와 질적연구가 25.0%로 가장 많았다. IJME는 조사연구가 50.0%로 절반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실험연구 18.75%, 질적연구 방법이 12.5%로 사용되었다. POM은 실험연구가 43.33%로 다른 연구방법보다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혼합연구가 20.0%, 질적연구가 16.68%임을 알 수 있었다.

<Table 6> Music education development research by research method

Rerearch method		JRME		CRME		IJME		POM		Total	
		N	%	N	%	N	%	N	%	N	%
Qualitative research	Case study	3	13.04	2	25.0	1	6.25	1	3.33	7	9.09
	Ethnography	0	0	1	12.5	0	0	0	0	1	1.30
	Phenomenology	2	8.69	1	12.5	1	6.25	1	3.33	5	6.49
	Qualitative research	5	21.74	2	25.0	2	12.5	5	16.68	14	18.18
Quantitative research	Survey	6	26.09	0	0	8	50	3	10.0	17	22.08
	Experimental research	6	26.09	1	12.5	3	18.75	13	43.33	23	29.88
Mixed method		0	0	0	0	0	0	6	20.0	6	7.79
Program development		1	4.35	1	12.5	1	6.25	1	3.33	4	5.19
Total		23	100	8	100	16	100	30	100	77	100

여기에 인간 발달연구에 사용되는 방법적 접근으로 종단적 연구, 횡단적 연구를 함께 살펴보았다. 동일한 연구 대상을 오랜 기간 걸쳐 연구하는 종단적 연구, 서로 다른 연령 집단을 비교하는 횡단적 연구가 보여주는 발달연구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제’ 항목은 연구에 사용된 주제를 의미하며, 다음에 나오는 ‘4. 연구주제별 연구 결과 분석’에서 제시된 주제와 동일하다.

<Table 7> Longitudinal & cross sectional research method

Journal name	Author	Participants	Period	Theme
	Mikszs & Gault(2014)	elementary students	1 year	cultural, environmental effects
IJME	Kwon, Choi, & Park(2020)	middle school students	1 year	social, emotional cognition
POM	Sakakibara(2012)	2-6 years	1 year	rhythm & melody cognition
	Demos et al.(2019)	cellist	1.6-year	rhythm & melody cognition
JRME	Madsen&Geringer(2015)	K-12 students		cultural, environmental effects
	Palmer(2016)	high school/ college instrumentalists		performance skill
	Koops(2017)	4-to7-year		cultural, environmental effects
POM	Hallam et al.(2012)	elementary/middle/ high school		performance skill
	Thompson&Opfer(2012)	adults/10-year/5-year		rhythm & melody cognition
	Asztalos&Csapó(2016)	1 st to 11 th graders		listening capacity
	Andrade et al.(2016)	7to10-year/university students(musicians& nonmusicians)		listening capacity
	Fancourt&Perkins(2017)	mothers 1-9 months post-birth		cultural, environmental effects
	Herbert&Dibben(2017)	10-to18-year		listening capacity
	Ilari et al.(2017)	elementary students		performance skill
	Giannouli, Kolev,& Yordanova(2018)	28 years/72 years		music and language

위 표에서 살펴보면, 종단적 연구와 횡단적 연구는 JRME와 POM에서 주로 많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먼저 종단적 연구를 살펴보면 종단연구 기간은 주로 1~1.6년 사이이며 대상은 매우 다양하였다. 횡단적 연구는 횡단연구의 특성상 다양한 연령대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연구 주제는 문화, 환경적 영향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았고, 리듬 가락 인지, 연주기술, 듣기 능력 등에 대한 연구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 방법과 함께 연구를 위해 사용된 자료수집 방법을 알아보았다. 현경실(Hyun,

2018)의 내용을 참고로 하여 자료수집 방법은 면담, 관찰, 질문지, 검사, 문헌분석으로 나누었고,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였을 경우 중복 체크하였다.

<Table 8> Music education development research by collecting data method

	JRME		CRME		IJME		POM		Total	
	N	%	N	%	N	%	N	%	N	%
Interview	9	24.32	6	37.5	4	16.0	6	16.67	25	21.93
Observation	6	16.22	2	12.5	5	20.0	3	8.33	16	14.04
Questionnaire	7	18.92	1	6.25	8	32.0	6	16.67	22	19.30
Inspection tool	15	40.54	4	25.0	7	28.0	18	50.0	44	38.60
Literature analysis	0	0	3	18.75	1	4.0	3	8.33	7	6.13
Total	37	100	16	100	25	100	36	100	114	100

먼저 전체적으로 검사도구를 활용한 연구가 38.6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면담을 활용한 연구가 21.93%로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질문지법이 19.30%, 관찰이 14.04%를 각각 보여주었다. 이를 학술지별로 살펴보면, JRME는 검사도구 활용이 40.54%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면담 24.32%, 질문지법 18.92%, 관찰 16.22% 순임을 알 수 있었다. CRME는 면담이 37.50%로 가장 많았고, 검사도구 활용, 문헌분석, 관찰, 질문지 순으로 사용되었다. IJME는 질문지법이 32.0%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그 다음으로 검사도구 활용, 관찰, 면담 순으로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POM은 검사도구 활용이 5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면담과 질문지법이 각각 16.67%로 나왔다.

4. 연구주제별 연구 결과 분석

음악교육과 관련된 발달연구의 현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의 주제를 발달 범주로 분류하여 연구 결과를 분석하였다. 발달 범주는 우선 발달심리학 관련 문헌들과 음악심리학 관련 문헌들의 목차 및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이렇게 정한 발달 범주별로 논문의 목적, 결과를 살펴보며 분류하였다. 분류하는 과정에서 범주들이 조정되었고, 최종 정해진 범주는 크게 발달적 경향, 음악 및 음악교육의 효과로 정해졌다. 각 범주 안에는 세부적으로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논문끼리 묶어서 정리하였다. 논문이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초록과 원논문을 살펴보며 범주를 확정하였다. 다음은 각 범주별 논문의 수를 정리한 것이다.

<Table 9> Music education development research by research theme

Research theme		N	%
Developmental trend	singing development	5	6.49
	rhythm & melody cognition	6	7.79
	listening capacity	4	5.19
	cultural, environmental effects	20	25.97
Effects of music and music education	performance skill	23	29.87
	music and language	4	5.19
	social, emotional cognition	5	6.49
	school music education	10	12.99

위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발달 경향에 대한 논문들은 노래 발달과 관련된 논문이 전체의 6.49%, 리듬 및 가락 인지와 관련된 논문이 7.79%, 듣기 능력에 대한 논문이 5.19%, 그리고 문화적, 환경적 영향에 대한 논문이 25.97%임을 알 수 있어 문화적, 환경적 영향에 대한 논문이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음악과 음악교육의 효과에 대한 논문은 연주 능력에 대한 논문이 29.87%, 음악과 언어에 대한 논문이 5.19%, 사회적 정서적 인지에 대한 논문이 6.49%, 학교 음악교육에 대한 논문이 12.09%를 보여 연주 능력에 대한 논문이 가장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은 각 주제별 논문들이 보여주는 주요 연구 결과들이다.

1) 발달적 경향

(1) 노래 발달

영유아의 노래 발달에 대한 연구는 지금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Giomi & Davila(2014)는 영아들의 여성 노랫소리 변별을 조사하여 나이 많은 영아들이 동일한 여성의 부르는 두 종류 가락을 구별하는 것과 달리 둘 사이를 구별하지 못함을 발견하였다. Benetti & Costa-Giomi(2019)는 노래발달 관점에서 영아들이 노래를 흉내 내는 것을 분석하여, 음고, 음정, 리듬 등의 노래가 가진 특성을 모방함을 발견하였다. Ilari et al.(2017)은 아동의 즉흥적인 노래 중지 방식을 연구하였는데, 연령에 따라 즉흥적인 노래 중지 점수와 음고 연결 짓기 기술이 향상됨을 알 수 있었고 이때 사용하는 전략을 발견하였다.

이와 함께 여성의 목소리 변화 과정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도 발견되었다. Sweet (2015)는 중고등학교 합창단을 대상으로 청소년기 여학생의 목소리 변화 과정과 특징

을 현상학적으로 조사하여, 여학생들이 경험하는 발성적, 정서적, 환경적 변화를 기술하였다. Sweet & Parker(2018)는 여성의 목소리 정체성 발달 과정을 현상학적으로 연구하여, 개인내, 개인간 상호작용이 성악가로의 정서적 지각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발견하였다.

(2) 리듬, 가락 인지

리듬, 가락 인지와 관련해서는 자발적 리듬 움직임에 대한 연구로 Ilari(2014)는 유아들의 음악에 대한 반응 중 자발적인 리듬적 움직임에 대해 조사하였다. 브라질 유아들이 다른 연구보다 자발적인 리듬 움직임에서 더 높은 평균을 보임을 발견하고, 문화가 여기에 큰 역할을 함을 보여주었다. Demos et al.(2019)는 전공자들의 리듬에 대한 표현적인 사용의 발달을 연구하였다. 장단조 인지와 관련하여 Thompson & Opfer(2012)는 아동(5세, 10세)과 성인을 대상으로 음악적 단편에 대한 장단조 인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음악적 훈련이 10세 일부와 성인의 장단조 인지를 향상시키지만 5세는 큰 변화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Sakakibara(2012)는 6세 이하 아동도 훈련을 통해 절대음감 획득이 가능하고 전략이 발달해감을 종단연구를 통해 확인했다. Büdenbender & Krautz(2016)은 14-64세를 대상으로 친숙한 선율을 규정하는데 미치는 요인들을 조사하여, 템포의 변화가 친숙함을 확인하는데 영향을 미치며, 음악 전문성이 선율 범주 인식에 결정적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3) 듣기 능력

듣기 능력의 차이에 대하여 Asztalos & Csapó(2016)은 학생들의 음악적 듣기 능력이 사회경제적 배경보다는 부모의 교육적 관심과 학업성적에 더 강한 관련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음악을 듣고 의미화하는 능력에 대해 Herbert & Dibben(2017)은 10-18세 학생들이 가지는 문화적 공유에 대해 연구하였고, 특히 10-12세 학생들이 음악을 통한 대리경험, 유도된 감정, 자기화 등의 반응을 가장 많이 보였다고 하였다.

(4) 문화적, 환경적 영향

발달적 경향에 대한 연구 중 문화적, 환경적 영향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았다. 먼저 가족과 관련된 연구로, Koops(2014)는 음악적 장소로서의 “가족 차량”을 연구하였는데, 가족차량은 방해 요인이 적고 형제간의 친밀함, 부모의 반응 기회 제공 등의 이점을 가진다고 제안하였다. Demorest, Kelley, & Pfordresher(2016)는 음악교과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조사하여, 가족의 음악 참여, 음악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Dayton et al.(2017)은 출산예정 부모들, 특히 환경적,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해 양육에 소홀할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음악의 역할과 중요성을 조사하였다. Fancourt & Perkins(2017)은 영국에서 엄마가 영아들에게 음악을 제공하는 방식을 조사하여, 주로 많이 하는 활동이 감상과 가창이고, 1-3개월에 비해 4-9개월 아이의 엄마들이 더 많은 음악을 제공해 주며, 음악경험이 있는 엄마들이 다른 음악적 활동에도 참여하려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엄마들의 음악적 참여가 교육 기간, 결혼 여부 또는 가계 소득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요인으로만 설명되지는 않음을 주장하였다. Botha & Panebianco(2018)은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완벽주의 경향에 끼친 부모의 영향을 조사하였다.

가족 이외의 사회적 요인에 대한 연구로는 초등학교생의 음악 경험과 사회경제적 수준과의 관계에 대한 국가간 비교를 한 Miksza & Gault(2014)의 연구, 음악과 다문화적 감수성에 대한 Howard(2018)의 연구, 청소년기 학생들의 음악적 문화·발달 심리학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해 제안한 Miranda et al.(2013)의 연구 등이 있다.

또래 간 상호작용에 대한 발달적 연구도 이루어졌다. Dansereau(2015)는 소리 나는 물체에 대한 유아들의 반응과 행동을 관찰, 분석하며, 음악적 놀이가 3,4세 모두 자주 관찰되었고, 두 연령 모두 그룹 상호작용보다는 혼자 놀이를 더 좋아했지만, 3세보다 4세에서 그룹 상호작용이 좀 더 자주 발견됨을 밝혔다.

음악선호도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이 중 Madsen & Geringer(2015)는 20세기 예술음악에 대한 연령별 반응을 조사하여 유치원, 3학년의 어린 아동이 나이가 많은 아동보다 선호도에서 높은 평균을 보임을 발견하였다. Chmiel, Emery & Schubert(2017)는 지난 115년 동안 음악선호도에 대한 연구를 조사하여 음악 선호의 패턴이 주로 역U자형 모델임을 보여주었다.

2) 음악 및 음악교육의 효과

(1) 연주기술 향상

연구기술에 대한 연구 중에는 불안과 같이 연주를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과 연습을 통해 발전시키게 되는 전략에 대한 것들이 있었다. Hamilton & Duke(2020)는 연습하면서 느끼는 자신의 의도와 연주 사이의 불일치를 인식하는 정도를 연구하였다. Zarza-Alzugaray et al.(2017)은 본격적인 음악 훈련을 시작하는 나이(평균 연령 22.64세와 12.09세)에 따른 음악연주 불안 지수를 검사하여 어린 학생들이 연주불안지수가 더 낮은 것을 보여주었다. Ranelli, Smith, & Straker(2011)은 연주와 관련된 근골격계 문제를 7-17세 악기를 배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성차와 연령별 차이가 있음을 밝혀냈다. Hallam et al.(2012)은 다양한 수준의 악기 연주자들이 연습하면서 발전

시키는 전략과 동기를 탐색하였는데, 여러 전략들 중 체계적인 연습 전략들, 연습의 구조화, 피드백을 위한 녹음 사용, 메트로놈 사용 등에서 학년과 전략 사이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재즈 즉흥연주 기술 발달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Palmer(2016)은 재즈 즉흥연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조사하여 청각적 모방과 기술적 능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즉흥연주가 발달적 관점으로도 바라볼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한편 연주기술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한 연구들에는 Aufegger et al.(2016)의 음악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가상의 관객이 있는 연주, 가상의 평정자가 있는 오디션 등의 시뮬레이션 환경 연구, 연주에서 자기조절학습의 효과에 대한 연구(Mikszta, 2011), 연주에서 음악적 성취와 자아효능감과의 관계(Zelenak, 2019), 밴드에서 음악적 독립성의 발달과정 연구(Weidner, 2015), 악기 학습이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효과(Rose, Bartoli, & Heaton, 2017) 등이 있었다. 이 중 특히 Weider(2015)는 교사가 학생, 교과 내용, 상황 등에 따라 다르게 학습을 도울 때 학생들의 음악적 독립성이 다양하게 나타남을 밝혔다.

(2) 음악과 언어

음악이 언어적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논문들이 많이 발견되었다. 예를 들어 Bugaj & Brenner(2011)는 음악교육이 인지발달과 독해에 영향을 미침을 문헌연구를 통해 정리하였다. Giannouli, Kolev, & Yordanova(2018)는 젊은이와 노인을 대상으로 음악이 언어적 기능에 주는 영향들을 조사하였다. Patscheke, Degé, & Schwarzer(2018)는 4-6세 아동에게 리듬 훈련, 음고 훈련, 비음악(스포츠)훈련을 실시하여, 이 중 음고 훈련 집단에서만 라임, 혼합, 분절 등의 음운 인지에 정적인 효과가 나타남을 밝혔다. Cohrdes, Grolig, & Schroeder(2018)는 5세 유아들 중 음악적 훈련을 받은 그룹과 언어적 훈련을 받은 그룹의 음악 기술이 눈에 띄게 중복되는 향상을 나타냄을 보여주었다.

(3) 사회, 정서적 인지능력 발달

사회, 정서적 인지능력 발달에 음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있다. Yinger(2014)는 노인에게 일어나는 감각적, 지각, 인지적 변화를 논의하고 합창 경험이 주는 효과를 제안하였다. Cuadrado(2019)는 사회적, 인지적 발달에 매우 중요한 기술, 즉 자아 확신, 동기화, 사회적 정서적 관련성, 그리고 웰빙의 향상을 위한 방법으로 음악, 음악 지능을 활용하여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Ros-Morente et al.(2019)는 합창부와 밴드 활동을 하는 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의 정서적 능력, 삶의 만족도, 공부 동기,

리더십 등을 조사하고, 음악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이런 기술들이 더욱 발달한 것을 알 수 있었다. MacRitchie & Garrido(2019)는 전공자와 아마추어가 섞여 있는 오케스트라에서 아마추어의 경우 정서적 참여가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고, 반대로 전문가의 경우는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Kwon, Choi, & Park(2020)은 음악회 참여가 학생들의 주관적 웰빙을 향상시킴을 제안하였다.

(4) 학교 음악교육

학교 음악교육과 관련하여, McPhail(2013)은 일 대 일 레슨을 통한 학생 자율성 발달을 제안하였다. Rickard et al.(2013)은 학교 음악 수업이 어린 학생의 자존감을 향상시킨다고 말하였다. 한편 Richerme(2016)은 다소 생소한 개념인 음악교육에서의 취약성 경험(불확실성, 위기, 정서적 노출 등)에 대한 철학적 고찰을 하면서, 개인적인 탐색과 발전을 가능케 하는 자아 개념이 불안정할 때 종종 취약성을 경험하게 되며 그런 경험들은 교사와 학생의 성장을 저해한다고 말한다. 특히 Elpus(2017)는 학교 음악교육이 전생애적으로 볼 때 예술참여를 어떻게 촉진시키는지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음악연주와 감상이 이후의 예술 참여와 가장 관련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IV. 결론

본 연구는 음악교육에서 2011~2020년 동안 이루어진 발달 관련 연구들을 국외 음악교육 관련 국제 학술지인 JRME, CRME, IJME, 그리고 POM의 학술지를 대상으로 하여 알아보았다. 각 학술지별 발달 관련 논문의 비중과 연구대상별, 연구방법별, 연구주제별 연구 결과 등을 알아봄으로써 현재 음악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발달 연구의 흐름을 짚어보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에 대한 결론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학술지별 발달연구 논문의 비율은 JRME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CRME, IJME, POM 순이었다. 연도별 특별한 차이는 없었고 발달에 대한 연구가 많지는 않으나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대상별 비율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초등학생이 21.95%로 가장 많았다. 중등 이하 학생과 대학생 이상 성인으로 나누어 비교했을 때 각각 59.76%와 40.24%를 차지하여 영유아부터 청소년기에 대한 연구 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영유아와 초등학교 시기는 발달에서 가장 역동적

시기이고 공교육을 위해 연구의 필요성이 큰 만큼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어찌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특히 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전체의 40.24%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전생애적 발달 측면에서 고려해 볼 문제라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결과는 석문주(Seog, 2004)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즉 음악교육과 관련된 음악 전문가, 전생애적 인간 발달 측면에서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학술지별 연구대상의 차이를 살펴보면 JRME는 영유아와 중등(전공자)가, CRME는 대학생(전공자), 그리고 POM은 일반 성인이 가장 많이 연구대상으로 사용되었다. 이는 각각의 학술지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발달연구에 사용된 연구방법을 보면, 실험연구가 가장 많았고, 조사연구, 질적연구, 사례연구 순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발달이론의 흐름이 인지발달 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발달과 생태학적 발달이 강조되면서 연구의 방향도 실험적 연구방법 뿐 아니라 질적 실태조사, 사례연구, 현상학적 연구 등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료수집 방법에서도 전체적으로 검사도구를 활용과 면담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질문지법과 관찰 등도 자주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술지별로 살펴보았을 때 JRME는 조사연구와 실험연구, CRME는 사례연구, 질적연구, JRME는 조사연구, POM은 실험연구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어 각 학술지의 특성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종단연구와 횡단연구에 대한 특징을 통해 앞으로 좀 더 다양하고 활발한 종단연구, 횡단연구 뿐 아니라 순차연구 방법을 활용한 연구도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음악교육에서 이루어진 발달 연구의 결과들을 연구 주제를 중심으로 범주화하여 살펴보았다. 범주화된 주제는 크게 발달적 경향, 음악 및 음악교육의 효과로 나누었고, 그 안에 세부적인 주제들을 그룹화하였다. 발달적 경향 중 노래 발달, 리듬, 가락 인지, 듣기 능력, 문화적 환경적 영향에 대한 연구들 중 문화적 환경적 영향에 대한 논문이 전체의 25.97%로 가장 많았다. 음악 및 음악교육의 효과 범주에서는 연주기술, 음악과 언어, 사회 정서적 인지, 학교 음악교육에 대한 연구들 중 연주기술에 대한 논문이 29.87%로 가장 많았으며, 학교 음악교육에 대한 연구도 12.09%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음악 발달 연구에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노래 발달, 리듬, 가락 인지에 대한 연구 이외에도 여성의 목소리 변화와 정체성에 대한 연구와 같은 사회 문화적 관심을 반영하는 연구들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문화적 환경적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가족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요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연구대상 중 전공자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연주 불안, 연습 전략,

연주 기술 향상 등, 연주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음악과 음악교육이 주는 효과에 대한 발달적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상으로 국제 음악교육 전문 학술지들을 통해 발달연구 동향을 살펴보았다. Custodero (2010)는 음악발달이 가지는 특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 바 있다: 음악 발달은 음악에 대한 문화적 정의에 의존한다, 음악발달은 경험과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복합적인 특성을 지닌다, 음악 발달은 일반 발달을 이끌거나 이끌어지기도 한다, 음악 발달은 초기 경험에 가장 민감하다(특히 음악에 대한 개인적 태도나 지각과 관련된 것들), 음악 발달은 자기 주도적인 발견과 타인과의 상호작용과 함께 성장한다, 발달에 대한 지식은 음악 교육적 행위와 환경을 설계하고 해석하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Custodero, 2010).

지금까지 살펴본 발달연구들은 이와 같은 특징들이 잘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앞으로의 연구는 이러한 특징들을 고려하여 문화적이며, 다학문적 연구로 이루어지고, 연구의 결과가 음악교육 안에 적극 담겨있어야 할 것이라 제안한다. 본 연구는 국외 학술지 4종을 대상으로 10년 동안의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앞으로 학술지의 종류와 기간을 확장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연구 동향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또한 이와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하고 연계성 있는 발달연구가 앞으로 활발히 계속 이루어지길 바란다.

Reference

- Bamberger, J. (1982). Growing up prodigies: The midlife crisis.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17, 61-77.
- Chang, H. W., & Trehub, S. (1977). Infants' perception of temporal grouping in auditory patterns. *Child Development*, 48(4), 1666-1670.
- Choi, E. S., & Shin, H. K. (2017). An investigation in trends of music creativity research focusing on research methods and areas. *Journal of Research in Curriculum and Instruction*, 21(3), 459-469.
- Choi, J. H. (2011). Research methodology of music education in Korea. *Journal of Music Education Science*, 12, 205-220.
- Custodero, L. A. (2010). Music learning and musical development. In H. F. Abeles & L. A. Custodero (Eds.), *Critical issues in music education* (pp. 113-142). NY:

Oxford U. P.

- Dowling, W. J. (1982). Musical scales and psychophysical scales: their psychological reality. In R. Falck & T. Rice (Eds.), *Cross-cultural perspectives on music* (pp. 20-28).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Gerrig, R. J. (2016). *Psychology and life*. Trans Lee, J. H., Park, K. S., Park, T. J., Seong, H. R., Lee, S. Y., & Chae, J. M. Seoul: Sigmappress.
- Gordon, E. E. (2003). *Music learning theory for newborn and young children*. Chicago: GIA.
- Hargreaves, D. J. (1986). Developmental psychology and music education. *Psychology of Music*, 14(2), 83-96.
- Hyun, K. S. (2018).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 of music educational psychology.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7(1), 147-168.
- Jang, S. H., & Kim, Y. Y. (2017). Analysis of research trends in early childhood music education reported from 1988 through 2016 in the journal of Korean music education research published by Korean music education society.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6(2), 103-130.
- Kwag, H. G., & Kwag, M. S. (2017).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 of music education in Korea with special reference to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Focusing on key words selected by the author.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6(1), 1-21.
- Moog, H. (1976). The development of musical experience in children of pre-school age. *Psychology of Music*, 4(2), 38-45.
- Seog, M. J. (2004). The alternative approach of music education inquiry in Korea through current research trends and issues in music education.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27, 91-128.
- Shin, H. K. (2013). Trends and issues of qualitative research in music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2(2), 91-117.
- Shin, H. K. (2020). Research trends in teaching and learning music composition using technology. *Journal of Music Education Science*, 43, 129-146.
- Swanwick, K. & Tillman, J. (1994). The sequence of musical development: A study of children's composition. *British Journal of Music Education*, 3(3), 305-339.
- Trehub, S. (2003). Toward a developmental psychology of music.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999(1), 402-13.

- Viig, T. G. (2015). Composition in music education: A literature review of 10 years of research articles published in music education journals. *Nordic Research in Music Education, Yearbook*, 16, 227-257.
- Welch, G. F. (2007). Early childhood musical development. In L. Bresler & C. Thompson (Eds.), *The arts in children's lives: Contest, culture and curriculum* (pp. 113-118). NL: Kluwer.